# 국립중앙博, 국내 최초 '태국미술' 전시 연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이 오는 6월 '태국미술' 특별전을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또 중국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귀중본 사경을 최초 공개하고, 연말에는 불교미술실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3일 교육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전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형 불교 전시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6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태국의 왕실·불교 미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태국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방콕국립박물관 등 태국 내 21개 국립박물관 소장품 203건 227점이 소개된다. 전시를 마친 후에는 10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이뤄진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박물관 3층에서 세계 미술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정상 세계 미술을 컬렉션해 수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세계 미술을 박물관으로 가져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태국 문화부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태국미술'을 전시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싶지만 접근하기 어렵던 세계 미술들의 면면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을 만날 수 있는 괘불전을 4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연다.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은 1710년에 제작된 높이 7m 42cm, 너비 5m 85cm 크기의 대형 불화로 중앙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십대제자를 함께 그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돼 있던 중국 돈황 석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귀중본 불교 사경을 10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경은 〈대지도론〉으로 중국 수나라 시기인 593년에 조성된 것이다.

유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 유물이 40여만 점이 있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돈황 장경동 문서 뭉치가 발견됐고 확인해 보니 수나라 시기에 제작된 귀중한 사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경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시기가 앞선 것으로

**2월 3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6월 16일~9월 6일 전시 개최**
**통도사 성보박물관서 순회전도**
**12월 중 불교회화 · 조각실 개편**
**부처님오신날 맞아 괘불展 진행**
**中돈황 장경동 사경 최초 공개**
**국립박물관들 불교 전시 '봇물'**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불교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인 불교조각실과 불교회화실은 올해 12월 중 전면 개편 및 재개관을 단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명품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잘 조명할 수 있도록 전시 구성을 변경하고 기존 유산 설명도 봉안처, 의례, 승려 장인 등을 추가해 입체적으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태국불교문화유산 '걷는 붓다'. 오는 6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태국미술'에 전시된다.

"불교조각실과 불교회화실의 전면 개편은 10여 년만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힌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이 20년이 지났고, 그간 전시 노하우와 연구 자료들의 축적들이 이뤄졌다"면서 "승려 장인, 발원문 전시 등을 통해 확인됐던 내용들이 전시 설명 등에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박물관들의 주요 불교 관련 전시 일정도 공개됐다. 국립경주박물관은 6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하며 신라 고분 출토품과 불교미술유산을 소개하는 국외 전시도 진행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9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주 서고사 나한상' 특별전을, 국립익산박물관은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백제 원찰, 제석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11월 중 상설전 '강원의 통일신라' 열고 염거화상탑지 등 강원 지역의 통일신라 불교문화유산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2026년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관람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에 착수한다.

유 관장은 "3월 16일부터 개관시간을 9시 30분으로 앞당겨 관람객 밀집도를 분산시키고, 8월에는 옥외 편의시설을 확충해 박물관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정립할 것"이라며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해 관람 환경과 운영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성과 학술성을 아우르는 특별전, 상설전시의 전략적 재구성, 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이 전시의 주체가 되는 박물관을 구현하겠다"며 "2026년은 박물관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그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 절제·성숙·자애의 동시적 실천

### ㉙ 삼취정계(三聚淨戒)

三聚淨戒

'소승불교'라 불려 온 초기 남방 상좌부 불교에 대비되는 대승불교는, '대승(大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출가 수행자를 넘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주와 의미 면에서 확장하여 이해하고, 이를 삶의 다양한 국면에 두루 적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율 이해의 확장이다. 계율은 더 이상 개인의 자기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전환된다.

하나의 계행에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구현되는 대승불교의 지계(持戒) 수행을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한다. 이는 악습을 끊는 지악(止惡), 선을 닦아 청정을 이루는 수선(修善), 그리고 이웃의 불안과 고통을 평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생(度生)으로 구성된다. 이를 일상적인 언어로 풀면 절제, 성숙, 그리고 자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범망경〉은 삼취정계의 실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하고 있다. 열 가지 중대한 계목과 마흔여덟 가지 세부 계목은 악을 멀리하는 섭율의계(攝律儀戒), 선을 닦는 섭선법계(攝善法戒),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섭중생계(攝衆生戒)로 체계화된다. 이러한 사상은 〈유가사지론〉, 〈보살영락본업경〉, 〈대지도론〉 등 여러 대승 논서에서도 반복해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삼취정계의 정신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경전은 〈화엄경〉 '십지품'의 이구지(離垢地)이다.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는 이 수행 단계에서 불살생은 단순한 금지 규범을 넘어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된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무르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의 살생을 멀리 여읜다. 칼과 몽둥이를 들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인자함과 용서함을 갖춘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항상 이익이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낸다. 이 보살은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괴롭히는 일조차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살해할 리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구지의 수행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분노와 증오 등 열 가지 악습을 선행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발원한다. "불자여, 이 보살이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 안락하게 하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삼취정계의 취지를 되새겨 보면, 지계 수행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지구별에서 전쟁과 수탈이 사라지고, 성폭력과 차별이 없는 연민과 자애의 공동체를 염원한다면, 삼취정계의 정신과 실천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평화가 되어라." 〈화순 불암사 주지〉

## 33관음성지 순례, 2026년 1차 회향

**1월 28일 회향식, 110명 동참**
**3세 어린이 최연소 회향 눈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월 28일 '2026년 제1차 33관음성지 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제1차에서는 총 110명이 회향을 마쳤으며, 회향식에는 67명이 참석했다.

'33관음성지 순례'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수록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각 사찰의 인장을 모두 모으면 회향증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회향식에서는 첫돌부터 순례를 시작해 3세에 회향을 완료한 '권단아' 최연소 회향자가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다. 순례기간은 22개월이다. 권단아 회향자의 아버지 권용대 회향자는 소감문을 통해 순례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순례를 하면서 가족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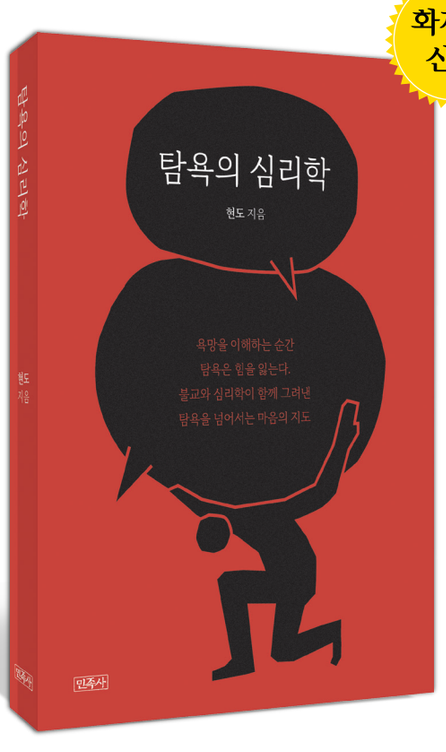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사찰순례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가치 중심의 관광이자 지역과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향은 단순히 도장을 모으는 순례가 아닌 사회적 의미와 개인의 원력을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이라고 축하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33관음성지 순례는 2025년 완주 회향자 296명, 이번 1차 회향식까지 누적 회향자 820명을 기록했다. 문화사업단은 향후에도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순례문화 확산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